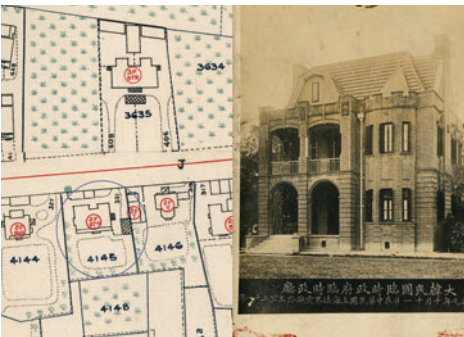




특집 _ 중국, 미국, 호주, 대만 등 재외동포사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화제 _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 “北 입장 조속히 알려달라”



글로벌 시대와 세계인



오늘날 세계는 경계가 없다. 흔히 국가를 말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을 말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경이라는 개념이 국가의 영토를 규정하는 제도로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장벽이 아니다. 국민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저 형식일 뿐이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89개국으로서 그 수로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전히 열린 세계이다.

더구나 오늘날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세계 수많은 정보나 자료를 어디서든 받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 방송도 거침없이 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주소는 행정적으로만 유효하고 실제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자신의 소재를 정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소를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 재외동포는 디아스포라가 아닌 세계 속에 한국인”

이런 의미에서 누구나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계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흐름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세계시민” 교과서를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세계시민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제, 즉 아프리카의 내전, 아이티의 지진, 지구온난화 문제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유네스코나 국제앰네스티 같은 세계시민활동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다룬다.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재외동포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속에 한국인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자. **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04



06



10



- 02 권두언 글로벌 시대와 세계인
- 04 특집 중국, 미국, 호주, 대만 등 재외동포사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 06 화제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 “北 입장 조속히 알려달라”
- 08 기획 1 임시정부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 역사적 공간, 상하이 임정 ‘1호 청사’ 를 가다
- 10 기획 2 한국인 1천여 명이 첫 도착한 멕시코 메리다시 ‘한국의 날’ 제정과 ‘에네켄의 눈물’
- 12 글로벌 코리안 상하이서 역사연구회 만들어 동포에게 독립운동사 알리는 이명필 대표 엘리제궁 디지털경제 참모 거쳐 장관 발탁... 동생 델핀 오는 하원의원 영어 소설 ‘네가 만일 나를 떠난다면’ 작가 크리스털 하나 김
- 14 한민족 공감 1 문 대통령 “독립운동 역사에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정신 함께해”
- 15 한민족 공감 2 伊·獨·美·뉴질랜드 동포사회,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 16 동포소식 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 3·1운동 100주년 결의안 채택 외
- 19 동포 캘린더 주홍콩 총영사관, 11개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외
- 20 유공동포 “지사님, 늦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모시겠습니다”
- 21 주목! 차세대 “이순신 장군 본받아 세계 어디 살든 자긍심 갖고 살겠다”
- 22 OKF 뉴스 내년 세계한상대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외
- 23 동포문학 김치담달 / 강세정(일본) 2018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4 재단공지 2019년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집 공고
- 26 우리말 배워봅시다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 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미국, 호주, 대만 등 재외동포사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상하이 행사 600여 명 참석... 필라델피아서는 '제1차 한인회의' 재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중국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지인 중국 충칭(重慶),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던 미국 필라델피아, 호주 시드니, 대만 타이베이까지 세계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4월 11일 오후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정부·국회 대표단, 동포·유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대규모로 열었다.



1



2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정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정부를 대표해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다”며 “그런 점에서 2019년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100년의 역사를 완성하는 시점이자 새로운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임시정부 헌장 전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동녕, 손정도, 현순, 신채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 29명은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인 진선푸(金神父·김신부)로에 있는 한 서양식 주택에 모여 첫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공원 의거가 일어난 1932년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杭州), 창사(長沙), 류저우(柳州), 충칭 등지로 험난한 피난길에 올랐지만 1945년 광복 때까지 외교전, 의열 투쟁, 미국과 연합한 국내 진공 작전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충칭에서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기념한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충칭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 재외국민, 충칭시 정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1천여 명,美서 태극기 들고 시가행진 재현

100년 전 미국에서 한국 독립의 열망과 독립국가 건설의 방향을 전 세계에 선포했던 '제1차 한인회의'를 재현하는 행사가 4월 12~14일 사흘간 1차 한인회의가 열렸던 필라델피아 리틀극장(현 Plays and Players)에서 열렸다. 4월 12일 개막행사는 100년 전 제1차 한인회의가 개최된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열려, 독립유공자 후손과 한인 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13일에는 리틀극장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독립운동가 후손, 한인동포 등 1천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약 2km 구간을 시가행진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차 한인회의는 국내에서 일어난



3

3·1운동 소식이 미주지역까지 퍼지자, 서재필·이승만·정한경 등 한인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결의 행사이다. 한인 동포 150여 명 외에 플로이드 윌리엄스 톰킨스 목사, 셸던 파머 스펜서 상원의원 등 미국인도 참여했다. '미국에서의 3·1운동'으로 불리는 당시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국 정부와 국민, 파리 강화 회의, 일본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 의지를 알리는 5개 결의안을 채택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시드니 명소 NSW주 미술관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4월 11일 저녁 호주 시드니의 명소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미술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시드니 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데미안 튜더호프 NSW주 금융장관을 포함, 호주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시드니 주재 각국 총영사, 동포 단체 대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그 정신과 의미를 나누었다.

타이베이, '백범 김구 선생 생애'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날 대만 타이베이의 대만대학교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한국·대만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국립 대만대학교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했다.

양창수 한국대표부 대표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임시정부가 표방한 정신



4



5

에 대한 평가와 계승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미래 지향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념식, 최재형 선생 후손 등 참석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국대사관에서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항일문학 창작으로 독립의식을 일깨운 공로로 올해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포석 조명희 선생과 러시아 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선생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30여 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명희 선생의 막내 아들 조 블라디미르가 부친에게 추서된 건국훈장을 전달받았다. [▶](#)

- 1, 2. 1919년 미국 제1차 한인회의 참가자들과 만세 시가행진 모습. (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 3, 4. 4월 11일 오후 중국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5. 중국 충칭서 개최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 “北 입장 조속히 알려달라”

한미정상 “톱다운 방식,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기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金 위원장과 대화門 열려있어”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담판과 관련해 “합의에는 못 이르렀지만 적잖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협상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 병진 노선 포기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 매진이라는 작년 4월에 설정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어



2



3



4

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무역·안보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다”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모두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튼튼한 방식을 통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이런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어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런 시일 내 북미 간 후속 협의를 열기 위한 미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뜻하는 이른바 ‘조기 수확론’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의 이견’이라는 지적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참**

1.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전 방영록을 쓰고 있다.
3.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4.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시정부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 역사적 공간, 상하이 임정 '1호 청사' 를 가다

'하비로 청사', 프랑스조계 중심지 위치... 현재는 패션 거리 변모

일 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의 심장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市 한복판의 유서 깊은 거리인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에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 프랑스 당국이 직접 관리하던 조계지였던 이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서양 양식의 건축물들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중국어로 된 간판과 유럽풍 건물의 공존이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거리다. 대형 쇼핑몰과 나이키, H&M 같은 글로벌 브랜드 점포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인파로 넘실대는 패션 거리로 변모한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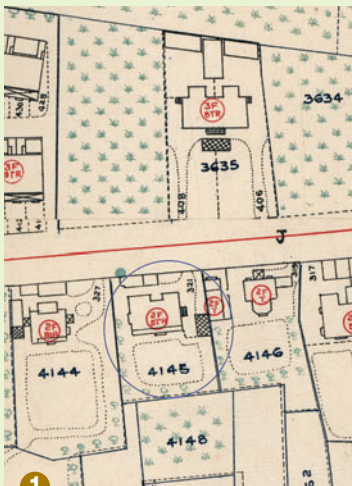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100년 전 가장 위풍당당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호 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독립 의지를 바탕으로 상하이의 독립지사들은 4월 10일 밤 10시 첫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다.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고,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직이 꾸려진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임시정부는 집무를 볼 번듯한 청사를 갖출 형편이 못 됐다.

도산 안창호, 재미동포 자금으로 프랑스 조계지에 임정 청사 건물 임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지긴 했으나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에서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각각 별도로 꾸려진 상황에서 온전한 정통성을 인정받은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임시정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안창호 선생의 합류로 임정은 비로소 안정된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까지 임시정부는 임정 요인이나 한인들의 집 등을 돌며 회의를 여는 등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는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안창호 선생은 그해 8월께 미국 동포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프랑스 조계지의 중심거리의 2층짜리 양옥 저택을 세냈고, 이곳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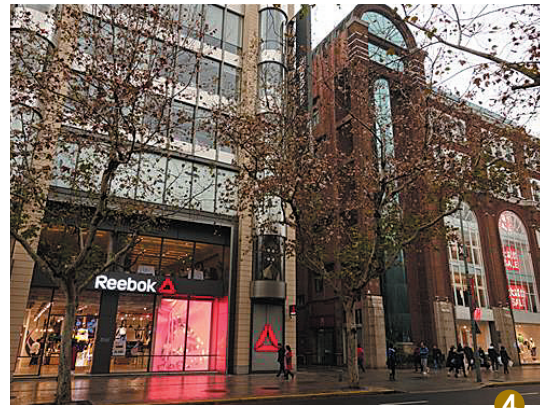


3

당시 이곳의 주소는 샤페이루(하비로·霞飛路) 321호로 확인된다. 현주소로는 화이하이중루 651호 일대다. 상하이시 당안관(기록보관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역사학자 쉬홍신(許洪新)씨로부터 받은 1920년 당시 프랑스 조계 당국의 지도를 보면, '하비로 청사'는 현재도 옛 모습을 간직한 쑨원(孫文·1866~1925)의 집무 건물 맞은편에 있었다. 정확히는 현재 리복 매장 건물과 H&M 매장 건물의 가운데 자리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쑨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사학과 교수는 '하비로 청사' 건물이 훗날 헐리면서 해당 필지가 현재 두 개의 건물에 반씩 나뉘어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건물은 현재 사라졌지만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비로 청사'는 앞에 넓은 잔디밭이 딸린 웅장한 2층 석조 건물이었다. 건물 우측 바깥에 내걸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특히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곳을 청사로 사용하던 시절은 임시정부의 역사에 있어서도 특히 중요한 때로 기록된다. 1919년 9월 '하비로 청사'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간의 통합 회의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9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는 비로소 전 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임정, 일제의 검거 피해 항저우, 창사, 류저우, 충칭 등지로 옮겨 다녀

하지만 임시정부의 '하비로 청사' 사용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그해 10월 강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프랑스 조계 당국이 임시정부 측에 48시간 안에 건물을 비울 것을 통보했다면서 일본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후 임시정부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10차례 이상 개인 집이나 한인 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1926년에야 현재 임시정부 기념관이 남아



4

있는 푸칭리(普慶里·보경리) 4호의 건물을 얻어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의거가 있던 1932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윤 의사의 의거(1932년 4월 29일) 이후 당시 상하이까지 점령한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선봉이 불면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杭州), 창사(長沙), 류저우(柳州), 충칭(重慶) 등지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하비로 청사'를 임시정부의 '1호 청사'로 의미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한국근현대사학회장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역임한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하비로 청사는 임시정부가 훗날에도 유일하게 뚜렷한 청사 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던 곳"이라며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상하이서 수립됐지만, 그전에는 안정적인 청사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안창호 선생이 내무총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비로 청사를 '1호 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참\]](#)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청사로 쓰였던 중국 상하이 샤페이루(하비로 321호)의 서양식 건축, 프랑스 조계 지적도 그림(왼쪽)과 하비로 청사 모습, 건물 우측 바깥에 내걸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원들이 1919년 10월 11일 샤페이루 321호 청사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독립기념관 제공)
3. 중국 상하이시 푸칭리(普慶里·보경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입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간 활동하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항저우, 광저우, 충칭 등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청사가 있던 옛 샤페이루(현 화이하이중루) 321호 일대의 현재 모습.

한국인 1천여 명이 첫 도착한 멕시코 메리다市 ‘한국의 날’ 제정과 ‘에네켄의 눈물’

“메리다 시민 DNA 검사하면 한국인 DNA 검출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



“북미 목서(墨西哥·멕시코)는 미합중국과 이
북쪽 문명 부강국이니, 수도(水土)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하며 나쁜 병질이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이다. 그 나라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어 노동자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
우므로 근년에 일(日)·청(淸) 양국인이 단신 혹은
가족과 함께 건너가 이득을 본 자가 많으니, 한인
도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1904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황
성신문에 7차례 실린 멕시코 한인 노동자 모집 광
고 문구다. 대한매일신보에도 “4년 계약, 주택 무
료 임대, 높은 임금”이라거나 “부녀자에게는 닭을
치게 하고 하루 노동 시간은 9시간이며 계약 기간
이 끝나면 보너스로 은화 100원을 지급한다”는 등
의 광고가 게재됐다. 당시 멕시코에는 선박용 밧줄
의 원료를 채취하는 에네켄(애니깁·용설란의 일
종) 재배가 성행했는데,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전
근대적 고용 관계가 남아 있는 데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농장주들은 인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
다. 광고 문구대로 1897년 일본에 이어 1899년부

터 중국 인력이 들어왔으나 이내 중단됐다. 그러자 영국계 멕시코인인 국제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은
한국인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이다.

허위광고에 속아 114년 전 한인 1천31명 태평양 건너 멕시코 이주

1905년 4월 4일 영국 선박 일포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한국인은
1천33명. 성인 남녀가 각각 702명과 135명이었고 어린이가 196명이었다.
멕시코 서부 살리나크루스항에 닿을 내린 것은 5월 8일이었으나 4일 뒤에
야 하선을 허락받았다. 태평양을 건너는 도중 어린이 2명과 남자 어른 1명
이 숨지고 아기 1명이 태어나 1천31명이 멕시코 땅을 밟았다. 이들은 기차
와 배를 갈아타고 5월 15일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반도의 메리다시에 도착
했다.

신문에 실린 광고 문구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뜨거운 사막에서 가시투성이인 에네켄 잎을 잘라내야 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이 가해졌고, 견디다 못해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갇혔다. 집세도 따로 내야 하는 데다 임금은 멕시코까지 오는 비용을 갹기도 빼듯했다.

황성신문은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참상을 사설로 보도했고 이를 본 고종 황제가 눈물을 흘리며 “동포들을 구하라”고 했지만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로 이를 해결할 외교권도 없었다. 1909년 5월,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조국은 사실상 국권을 빼앗겼고 돌아갈 여비도 없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고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274명은 1921년 쿠바로 건너갔다. 에네켄 농장은 1920년대 인조섬유가 등장하면서 문을 닫았지만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온 이민 1세대는 한 명도 없었다.

멕시코·쿠바 한인 어렵게 번 돈 모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들은 대한인민회 지부를 결성해 독립운동 후원과 민족의식 고취에 나섰다. 어렵게 번 돈을 모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가 하면 한글학교를 세우고 3·1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 쿠바의 임천택과 멕시코의 김익주가 그 중심인물로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과 애족장을 받았다.

마이애스의 사기극이 한 차례로 끝나 추가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멕시코 이주자들에게는 불행이었다. 뒤따라 오는 한국인이 없어 모국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바람에 정체성을 빨리 잃어버린 것이다. 남녀 성비도 맞지 않아 현지인과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2세와 3세로 내려가며 대부분 현지화됐다.

멕시코에는 3만여 명, 쿠바에는 1천여 명의 초기 이민자 후손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후손회가 결성돼 있으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가정에서 양배추 김치와 된장·고추장을 담가 먹으며 희미하게나마 한민족의 전통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늘어나고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조상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민자로 구성된 멕시코한인회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설이나 추석 때 초기 이민자 후손을 초청해 전통 차례를 재현하고 민속놀이를 가르쳐준다.



한국과 국교가 없는 쿠바에서도 2014년 호세마르티 문화원(한인후손문화원)이 문을 연 뒤 후손들의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한인들은 최근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

멕시코 유카탄 주 메리다 시의회가 3월 30일 한인 이민자가 멕시코 영해에 처음 들어온 날인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다.

아루투로 레온 시의원은 “현재 메리다 시민의 DNA를 검사하면 한국인의 DNA가 검출될 정도로 메리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일포드호가 출항한 인천시는 2007년 메리다시와 자매결연해 친교를 다지고 있고 메리다시는 2017년 12월 중심지의 한 도로를 ‘대한민국로’로 명명했다. [\[참\]](#)

1. 멕시코 농장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에네켄 잎을 잘라내고 있다.
2. 멕시코 이민 초기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3. 2011년 8월 14일 멕시코 남부 메리다시에서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들이 66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갖고 한인이민100주년 기념탑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4. 2017년 12월 21일 당시 전비호 주멕시코 한국대사(오른쪽)와 마우리시오 빌라 멕시코 메리다시장이 ‘대한민국로’ (Avenida Republica de Corea) 기념탑 동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멕시코 유카탄 주 메리다 시의회는 올해 3월 30일 한국 이민자 1천31명이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영해에 처음 들어온 날인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했다.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진정한 영웅을 찾자”



상하이서 역사연구회 만들어 동포에게 독립운동사 알리는 이명필 대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흐름이 지속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국 독립운동의 산실이던 중국 상하이에서 동포들에게 10년 넘게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명필(50) ‘HERO 역사연구회’ 대표는 4월 5일 임정 100주년을 맞아 고조된 독립운동사에 관한 관심이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에서 ‘화이버 테크’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이 대표는 2008년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역사 단체인 ‘HERO 역사연구회’를 만들었다. 단체 이름은 ‘History’(역사), ‘Exploration’(탐험), ‘Research’(연구), ‘Organization’(조직)이라는 네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진정한 영웅을 찾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약해지는 동포사회의 어린이·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업과 무관한 역사 교육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 아이들부터 중국에서 커가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없어 아쉬웠어요. 중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원생 등 뜻있는 동포들과 의기투합해 역사연구회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HERO 역사연구회는 설립 이후 상하이의 어린이, 청소년 등 동포들을 상대로 역사 특강과 역사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임정 학교’라는 이름으로 최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한국 유학생 등 다양한 동포 층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정 학교’를 거쳐 간 동포의 수는 벌써 800여 명에 달한다. 10여 년간 ‘HERO 역사연구회’를 이끌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본업이 무역회사 대표에서 ‘역사 지킴이’로 바뀌었다.

한국계 장관 또 탄생... 마크롱 측근 ‘젊은 피’ 세드리크 오

프랑스에서 또 한 명의 한국계 장관이 탄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3월 31일 발표한 장관급 인사 3명의 명단에는 세드리크 오(37·한국 이름 오영택) 디지털 경제 담당 국가비서(장관급)의 이름이 눈에 띈다. 성(姓)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한국계다.

세드리크 오는 1982년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에서 불어 강사를 했던 프랑스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서 자랐다. 명문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고등상업학교(HEC)를 졸업한 뒤에는 2006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후보의 사회당 대선 경선 팀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해 당시 같은 보좌진으로 일하던 마크롱 대통령을 알게 됐다. 이 인연으로 2016년 마크롱이 창당한 중도신당 ‘레



뤼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에도 참여했고 이후 대선에서 마크롱 캠프와 집권당의 선거회계를 총괄했다. 마크롱이 집권한 2017년부터는 엘리제궁에 입성해 디지털 경제 부문의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됐다.

프랑스에서 최근 한국계의 입각은 드물지 않았다.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이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장뱅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 역시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 국가개혁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입양된 경우라 세드리크 오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다. 세드리크 오의 동생인 델핀 오(34·한국이름 오수련) 역시 집권당 뤼블리크 앙마르슈 소속으로 파리 16구를 지역구로 둔 하원의원이며, 중동 정책 전문가다. 세드리크 오는 개각 발표 후 트위터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감격스럽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뢰에 감사한다”면서 프랑스의 기술과 융합, 디지털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글쓰기는 내 정체성 이해하는 수단”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글쓰기는 내 정체성을 이해하고 탐방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 ‘네가 만일 나를 떠난다면’(If You Leave Me)은 영어로 돼 있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마치 한국 소설을 읽는 듯 친숙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부산 난민촌이 눈앞에 그려지는가 하면 ‘nuna’(누나), ‘hyung’(형), ‘makgeolli’(막걸리) 등 우리나라 고유 단어들도 알파벳으로 적힌 것을 보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크리스탈 하나 김(Crystal Hana Kim)은 3월 27일 데뷔작인 이번 소설이 “한 가족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한국 전쟁의 영향을 받은 모든 한국인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네가 만일 나를 떠난다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1년부터 1967년까지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사랑과 갈등,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정함에 대한 내용도 담겼지만, 이를 주요 주제로 삼기보다 전쟁 시대를 사는 평범한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묘사하는 데 집중했다. 김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컸지만, 한국에 친척을 만나러 매년 가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에 관한 소설을 쓴다면 내 문화적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베트남 전쟁, 세계 2차대전과 다르게 ‘잊힌 전쟁’으로 불린다”며 “이 시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책은 미 도서관연합(ALA)이 선정하는 ‘올해의 처녀작 10선’에 뽑히는 등 미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사랑받았다. 뉴욕 퀸스에서 태어나 컬럼비아대에서 창작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남편과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엘리제궁 디지털경제
참모 거쳐 장관 발탁...
동생 델핀 오는 하원의원



영어 소설
‘네가 만일 나를 떠난다면’
작가 크리스탈 하나 김



문 대통령 “독립운동 역사에는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정신 함께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국민순방 기간 현지 동포들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16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국 순방 기간 국내 업체가 참여한 건설 현장을 찾거나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인 근로자를 비롯한 동포들을 격려했다. 3월 12일 말레이시아를 국민방문한 문 대통령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는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이 함께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에서도 소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고무농장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15년부터 1917년의 일이니 말레이시아 동포사회의 자랑스러운 숨은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상생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기체류 동포가 늘어 한인사회 규모가 약 2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도 동포들이 이국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 테러·재난에서 동포를 지키기 위해 작년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개소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해 더욱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듀크 호텔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를 만나도, 예상치 못한 재난에 처해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월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해외 사건·사고·재난에 대응하고자 작년 5월부터 365일 24시간 가동에 들어간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예시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캄보디아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를



3월 11일 브루나이를 국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림건설이 수주한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위). 말레이시아를 국민 방문한 문 대통령이 3월 12일 쿠알라룸푸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배출한 최용석 캄보디아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한·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출신의 유명 여성 당구 선수인 스롱 피아비 씨, 한·캄보디아 부부 8쌍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 브루나이 방문 기간인 3월 11일 브루나이 최대 건설 공사로서 한국의 대림건설이 수주한 템브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창\]](#)

伊·獨·美·뉴질랜드 동포사회,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걸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이탈리아,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동포들이 추모행사를 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하는 한인 신부와 수녀 등 성직자와 한인 평신도 등 80여 명은 이날 저녁 로마 중심가에 있는 교황 청립 그레고리안 대학의 예배당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300여 명에 이르는 로마 체류 한인 성직자들은 세월호 사고 1주기부터 매년 어김없이 추모 미사를 열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부활절을 앞둔 시기라 상당수의 성직자가 순례를 떠난 데다 미사 공지도 늦게 돼 참석자가 적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예상과 달리 예배당이 가득 들어차 세월호 추모 미사에 대한 로마 한인 성직자, 신자들의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예수회 소속의 김민철 신부는 강론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그만하고 하는데, 뭘 그만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알기 위해서라도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을 우리 사회가 철저히 되돌아보고,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또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오늘날 기억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자”며 “어린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이며, 그래야 동일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4월 22일까지 5년 전 그날을 기억해볼 수 있는 전시회 ‘세월호 기억의 공간’이 시내 ‘PG베를린’에서 열렸다.

‘베를린행동’이 4월 12일부터 마련한 ‘세월호 5년 잊어도 될까요’라는 주제의 전시회에서는 304명의 희생자 영정, 학생들 휴대폰 동영상, 세월호 침몰 사진 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또 ‘416 가족협의회’가 진행했던 2017년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 날들’을 재구성한 내용, 영상 등의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다. 독



4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한인 성직자들이 주축이 된 ‘세월호 5주기 추모 미사’가 열렸다.

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풍경세계문화협의회는 4월 16일 한국 문화회관에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바라본 영상 ‘크로스 로드’ 상영회를 열었다.

만하임에서는 4월 13일 바셔투름에서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들이 마련한 기억문화제가 개최됐다. 주최 측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뉴욕·뉴저지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4월 14일 퀸즈 플라싱 레오나드 스퀘어에서 5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 모임은 5월 17일 퀸즈칼리지에서 유가족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416 유가족 합창단 공연을 마련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더좋은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이 4월 13일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 벤치’를 오클랜드 시내 밀포드 실반 파크에 세웠다. **창**

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 3·1운동 100주년 결의안 채택

“100여 년 전 한인사회 조성됐고 한미 양국 세계 평화 위해 공조” 언급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은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앤서니 포텐티노(민주)·리처드 판(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제목은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로 찬성 36, 반대 0, 기권 2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월 28일 ‘유관순의 날’ 기념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은 현재 표결 대기 중이다.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은 상원에서 별도로 상정해 채택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 측은 “이번 결의안은 3·1운동이 일제치하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평화시위였던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듬해인 1920년 3월 1일 캘리포니아 주 리들리·다뉴바에 한인들이 모여 최초로 3·1운동 기념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에는 100여 년 전에 한인사회가 조성됐고 현재 한인(시민권자) 4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미 양국은 양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라고 썼다.

LA총영사관은 “결의안을 발의한 포텐티노 의원실에 3·1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결의안 채택을 독려했다”라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 中 뤼순감옥서 열려

주다렌 영사출장소장 “안 의사 유해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울 것”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인 3월 26일 순국 장소인 중국 라오닝 성 뤼순(旅順)에서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인 3월 26일 순국 장소인 중국 라오닝 성 뤼순(旅順)에서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1909년 10월 26일 헤이룽장 성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안 의사는 이후 뤼순감옥으로 압송됐고 1910년 3월 26일 형이 집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뤼순감옥 박물관 내 안 의사의 순국지점에 조성된 기념실에서 진행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께서는 109년 전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다. 대한민국을 위해 승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열사께서 외치셨던 동양평화론의 가치를 따라 이제 평화를 위한 진군, 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5부 능선을 넘은 대한민국 평화를 열사의 뜻에 따라 지키겠다. 동양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주다렌 한국영사출장소 최종석 소장은 “어느 장소엔가 묻혀있을 안 의사의 유해를 찾는 일에, 아직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 측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한중친선협회와 다렌한국인(상)회, 민주평통 다렌지회가 주최 및 주관을 맡고, 주다렌 한국영사출장소 및 민주평통 선양협회가 후원하는 민간 행사로 열렸다.

“LA 한인타운 욱일기 벽화 제거하라” 한인예술가단체 촉구

“일제 잔악상 떠올리게 해” 교육 당국에 서한 발송



LA 한인타운 학교 외벽에 그려진 욱일기 문양 벽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학교 건물 외벽에 그려진 욱일기 문양 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3월 19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 단체 ‘교포’(Gyopo)는 한인타운 내 로버트 F.케네디(RFK) 공립학교 체육관 건물에 그려진 화가 뷰 스탠튼의 욱일기 문양 벽화를 제거하거나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LA통합교육구 로버트 마르티네스 교육감에게 보냈다.

이 단체는 “그 벽화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잔악상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밝혔다. 단체에 참여한 예술가 제니퍼 문은 “상징과 이미지가 트라우마를 준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는 해머뮤지엄 선임 매니저 낸시 리, LA카운티뮤지엄 큐레이터 크리스틴 Y.김 등 한인 예술가와 예술계 종사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문제의 벽화는 할리우드 배우 에바 가드너와 앰배서더호텔 팜트리를 중간에 놓고 주변을 욱일기 형태의 광채로 표현한 것으로, 2016년 학교 벽화 축제 때 그려졌다. LA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공립학교 건물 외벽에 욱일기 문양의 벽화가 그려진 데 대해 공분을 표출해왔다.

이해찬 대표 “한반도 평화공존 절호의 기회 놓쳐선 안 돼”

하노이 동포간담회… “올 하반기 다낭에 총영사관 설치”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홀에서 3월 25일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3월 25일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지 못했지만,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공존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낭에 총영사관이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다”며 “총영사관 설치에 신남방정책 핵심국가로서의 베트남 위상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노이한인회의 윤상호 회장은 “2차 북미회담 당시 회담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응원을 준비했지만, 베트남 당국이 불허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당시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동포 모두가 한마음이였다”고 밝혔다. 하노이동포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방문 시 무비자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의 한국인 채용 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한국·베트남 가족의 한국 입국 시 5년 복수비자 발급에 이어 단기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아테네 하늘 수놓은 태극 연... 주그리스 대사관, 연날리기 행사

현지 그리스인·재외동포 등 150명 참석해 평화 기원하고, 우의 다져



3월 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한국-그리스 연날리기 행사'에 참가한 한국 교민과 그리스 시민들.(주그리스 한국대사관 제공)

봄으로 접어드는 그리스 아테네 하늘에 태극 문양이 선명한 연들이 휘날려 장관을 연출했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3월 9일 아테네 외곽의 파니 언덕에서 그리스 현지 주민들과 한인동포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그리스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올해 소망을 담은 태극 문양의 연들을 하늘 높이 띄워 올리면서 양국의 우의와 평화를 기원했다. 연날리기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한국의 민속놀이인 제기차기와 투호를 함께 즐기면서 친분을 다졌다.

그리스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을 날리는 오랜 풍속이 존재한다. 연은 기원전 4세기께 그리스 과학자 알타스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인들은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날인 '정결 월요일'에 기도가 하늘에 더 잘 닿기를 기원하면서 연을 날리는 문화를 갖고 있다.

임수석 주그리스 대사는 "양국이 서로의 공통적인 문화인 연날리기를 함께하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이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한국과 그리스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리스 한인회, 아테네 한글학교가 공동 개최했다.

'연해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옛집, 독립운동기념관 됐다

우수리스크서 개관식... 2014년 재외동포재단 고택 구입에 이어 보훈처 지원 10억 등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최재형 기념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최재형 선생 옛집이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사진은 기념관 외부 모습.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재외동포'로 기술된 최재형(1860~1920) 선생의 러시아 옛집이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변신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하기 전까지 거주한 고택을 독립운동 기념관(전시관)으로 조성해 3월 28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현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전시관과 영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지 약 640㎡, 연건평 100㎡ 규모로 조성됐다. 이 건물은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4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27만 달러)으로 매입한 유서깊은 곳으로 이번 개관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최재형 선생 후손, 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고려인 동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보훈처에서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에 10억 원을 지원해 건립됐다. 최재형 선생이 거주했던 옛집 개보수를 통한 전시관 조성, 관리동 설치, 담장 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이번에 개관하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최재형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중심으로 전시 내용이 구성됐고, 입구에는 최재형 선생의 애칭인 '페치카'(난로)가 전시돼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알리는 대표적 독립운동 유적지이자 역사탐방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임도재 회장 재추대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3월 26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도재(67·사진)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1년까지 이중총연합을 이끌게 된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우물을 퍼주는 '평화의 샘물' 사업도 지속해 펼치고, 올해부터는 말라리아가 만연한 지역에 모기장을 후원해주는 사업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이날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총회도 열려 김점배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주홍콩 총영사관, 11개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은 4월 2일 총영사관 강당에서 은행, 자산운용, 증권사 등 홍콩에 진출한 11개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에는 재홍콩 한인 유학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사 관계자와 일대일 상담도 했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이날 채용설명회를 녹화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튜브에도 올려 이번 행사에 이쉽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취업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브라질 한인 단체 관계자들 보우소나루 대통령 면담

브라질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면담은 3월 28일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접견실에서 이뤄졌으며 김찬우 주브라질 대사와 최용준 브라질 한인회 회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김정수 브라질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8월에 개최되는 한국의 날 행사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했다.

스페인 마요르카서 유럽한인 차세대 웅변대회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현·사진)는 3월 22~24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3·1 운동과 유럽 한인 이주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8회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26명이 참가해 초등, 중고등, 다문화가정부 3부문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대상인 외교부장관상은 이탈리아에서 온 초등부 참가자 양서연 양에게 돌아갔다.



미 '파차파캠프' 연구자, 장태한 교수 재외한인학회 학술상 수상

초기 미주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싹을 움트게 한 '파차파(Pachappa) 캠프'를 연구해온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UC 리버사이드) 장태한(사진) 교수가 재외한인학회(회장 김재기 전남대 교수)의 최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인 장 교수는 1908년 뉴욕 보험회사가 제작한 지도에 한인 거주구역으로 표시된 기록을 단서로 안창호 선생과 파차파 캠프 한인들의 활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흔적을 추적해 연구해왔다.

중 선양 한인회, 중소기업 상품·무역 전시관 개관

북·중 접경인 중국 라오닝 성 선양(瀋陽) 지역 한국인(상)회가 3월 29일 중소기업 상품·무역 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은 선양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시타제(西塔街)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 한인회 측은 전시관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가 진행되면 대북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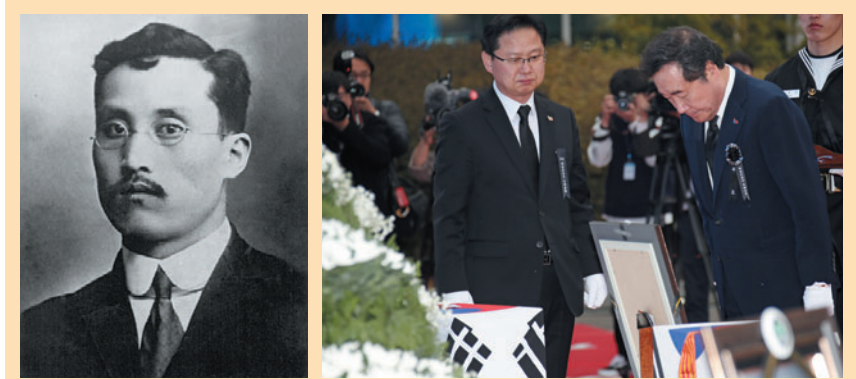
“지사님, 늦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모시겠습니다”

中 상하이서 잠든 독립운동가 김태연 지사 유해, 100년 만에 귀국

중 국 상하이의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독립운동가 김태연(1891~1921년) 지사의 유해가 그의 사후 근 100년 만에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 4월 9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주차장에서 김태연 지사 등 세 분의 애국지사 유해 봉영식이 열렸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8일 오전 상하이시 창닝(長寧)구에 있는 외국인 공동묘지인 만국공묘(萬國公墓)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김 지사의 무덤에서 유해를 꺼내는 파묘(破墓) 행사가 진행됐다. 김 지사의 외손자인 조관길 씨와 국가보훈처·주 상하이 총영사관 등 정부 관계자, 상하이 한인사회 대표 등 참석자들은 파묘에 앞서 먼저 ‘TAI Y KIM’이라는 영문 이름이 적힌 묘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

김 지사는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5월 상하이로 망명해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만 30세이던 1921년 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아내와 네 딸을 고향에 남겨두고 상하이로 망명했던 그가 조국을 떠난 지 꼭 100년 만에 귀국하게 된 것이다. 많은 한인이 독립운동 거점인 상하이로 몰려들던 시절 김 지사는 몽양 여운형 등과 함께 상해대한인거



김태연 지사(왼쪽 사진)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대한인거류민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7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서기 및 황해도 의원으로 선임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재수(1876~1956) 지사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태연, 강영각(1896~1946) 지사의 유해봉영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류민단을 조직해 한인들의 자치 활동을 이끌었다.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고 이듬해인 1920년에는 구국모험단 참모부장을 맡아 군자금 모집, 폭탄 등 무기 구입, 일본 관청 파괴 및 일본 관리 암살 등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1921년 상하이 한인 자녀들 교육 기관인 인성학교의 교장을 맡아 동포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애국 활동을 벌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면서 김 지사와 함께 만국공묘에 묻혔던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과 신규식·노백린·김인전·안태국·윤현진·오영선 지사 등의 유해가

한국으로 옮겨졌지만 김 지사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확인이 됐다. 후손들 역시 김 지사가 이곳 만국공묘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 우리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김 지사가 숨진 직후 당초 임시정부 청사에서 멀지 않은 상하이 중심의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다가 수차례 이장을 거쳐 만국공묘로 옮겨졌고, 묘비에 아무런 정보 없이 ‘TAI Y KIM’이라는 영어 이름만 적혀 있다 보니 확인이 쉽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2015년부터 수년째 물밑에서 중국 정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김 지사의 유해를 봉환할 수 있게 됐다. **장**

“이순신 장군 본받아 세계 어디 살든 자긍심 갖고 살겠다”

'이순신 글쓰기 대회' 최우수상 받은 태국 한인 여고생 고경연 양

“살아서 나라를 지켰지만, 죽어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킨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내 이웃과 내 나라, 그리고 세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도 전 해외에 나가 정착한 재외동포 차세대들에 이순신 장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에 갔고, 한국학교에 다니며 우리 말과 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 고경연(10학년) 학생은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며 “장군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 양은 미국 버지니아 주 헌튼에 본부를 둔 '이순신미주 교육본부'(이사장 김대영)가 전 세계 한국 학교 학생과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2회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 최우수상인 거북상을 받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라는 자문자답을 평생에 걸쳐 몸소 실천하셨기에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고, ‘최고의 스승’이라고 썼다.

또 “남다른 부지런함과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공명정대한 마음, 백성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 다니는 고경연 양.

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심이 장군의 삶에 모두 녹아 있었다”며 “만약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분의 살신성인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장군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본받아 더 나은 민족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고 양은 “무엇을 하든지 무작정 부딪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피지

기 백전불태’, 즉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승리와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서 배웠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일화로 유명한 명량대첩을 통해서는 “자신의 앞에 닥친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 보여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모범을 봤다”고 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글을 맺었다. 고 양은 수상 특전으로 4월 말 충남 아산시에서 열리는 이순신 축제에 참여한다. [▶](#)

내년 세계한상대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훈복 중국한국상회 고문, 송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한창우 마루한그룹 회장, 한우성 이사장, 홍명기 듀라코트그룹 회장, 정진철 로얄아이맥스 회장,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최중태 아마젠 그룹 회장, 이은희 미주부티여성경영인협회 회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제3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제 19차 세계한상대회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한인 경제단체장과 역대 대회장 등 50여 명의 운영위원은 부산광역시의 개최 계획과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차기 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는 2006년 5차, 2007년 6차, 2011년 10차, 2014년 13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한상대회는 해외 한인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간 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한민족 최대 경제 컨벤션이다.

엘살바도르 한상 하경서 회장, 글로벌한상드림에 5만 달러 기부

엘살바도르 까이사(CAISA)그룹 하경서(57) 회장이 한상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에 5만 달러(약 5천600만 원)를 기부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 4월 1일 밝혔다.

하 회장은 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제34차 운영위원회 및 제35차 리딩CEO 포럼 행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차세대 한민족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기금을 내놨다. 엘살바도르 한인회장인 하 회장은 현지에서 섬유, 포장, 커피 농장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미혼모 직업 교육 프로그램인 '가로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 중이다.



홍명기 글로벌한상드림 이사장(왼쪽)과 하경서 까이사 그룹 회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하경서 회장의 기부처럼 글로벌 한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도움을 받은 차세대 청년들은 세계 속 리더로 성장하여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이 전통을 계속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국내 차세대 한민족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 재외동포 한상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재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화여대와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관내 교원 대상 연수시 재외동포 이해교육 특강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은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국 교육·연수 프로그램 상호 협력과 한글학교 교원 역량 및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에 필요한 교육 자원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양 기관은 또 제주 출신 재외동포와 관련한 인물·단체 현황 파악과 교육콘텐츠 개발, 재일민족학교 교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3월 26일 이화여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심소희 원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목적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정보를 활용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다문화·입양인(자녀) 등의 인권지원, 교육·연수·행정 인력의 해외 파견 등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



김치담달

강세정(일본) 2018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엄마 여기 배추는 물이 너무 많아요
절여 놓으면 짜도 짜도 물이 나와요
김장을 해도 너무 허망해요
기온이 높아서 금방 삭아요
엄마 김치 안 보내주셔도 되지만
보내주시려면 단단히 싸주셔야 해요
지난번엔 날이 더웠나 박스가 땡땡 부풀었어요
아빠더러 이번엔 주소 잘 적으라고 해주세요
요전번엔 번지수를 빼먹어서 우체부가 고생했어요
시아버지는 쉰 김치를 좋아해서 냉장고에 가득해요
난 새 김치가 먹고 싶은데 도착하면 죄다 쉬어버려요
그러니 안 보내주셔도 되요
그래도 보내주시려면 걸절이랑 깍두기도 한 봉지씩 넣어주세요
엄마 여기서는 아무리 흥내 내려고 해도
배추도 무도 한국 같지 않아요
멸치젓 새우젓 보내주지 마시고 다음엔 그냥 엄마가 오세요 



2019년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각국에 있는 미래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동포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역량 있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해 9월 1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지난해 9월 19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70여 명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망배단 경의선 증기기관차 앞에서 평화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 행사개요

가. 행사명: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나. 목적

-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주요인재 발굴

다. 기간: 2019. 9. 2(월) ~ 9. 6(금) <4박 5일>

라. 지역: 서울(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및 지방(미정)

마.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임시정부 수립 100년, 한인사회 미래 100년'을 기조로 모국 체험프로그램 진행
-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연설
-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 정부기관 방문 및 관련인사 예방
- 국내외 동포간 네트워킹 활동 및 모국문화 체험
-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및 취재 등

2. 참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 25~45세의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 계속 거주한 자
- 재외동포 교류촉진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분야
 -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 예술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
 -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
 - 경력 및 활동내용이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선정기준

- 종사 분야 전문성, 향후 성장 가능성

- 신청 동기 및 참가 의지
- 거주국 및 한인사회 활동내용
 - 사회공헌 및 기여 내용, 참여 및 활동 실적
- 해당분야 업적 및 언론소개 내용(참고)
- 기타 추천 특이사항 등(참고)

다. 모집 인원: 국외 100명

라.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한국시간 기준)
 - 개인 신청: 공고일부터 ~ 5. 6(월)
 - 공관 검토 및 재단 제출: 5. 17(금)까지
 - 선별 결과 공지: 5. 29(수) 이전 (개인 이메일, 관할공관 통보)



•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접속 사이트: www.korean.net
- 개인: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후 신청 완료(※공관 제출 불요)
- ※첨부 자료 업로드: 이력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활동 및 경력 관련 언론기사, 수상 경력 등
- 공관: 지원신청 내역 확인 → 공관 의견 및 추천 순위 작성 등
- 이용방법
 - *개인: ID/PW 로그인(신청자 본인 명의 ID) → 재단 사업 → 초청 사업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자료 업로드 → 저장(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 → 신청완료(수정 불가능)
 - *공관: ID/PW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목록 및 신청서 확인 → 공관 의견 및 우선순위 작성 → 신청목록 엑셀 다운로드 → 신청목록 첨부한 공문 재단 송부(5. 17 이전)

3. 지원내용

가. 항공료: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50% 지원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참가자 및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은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70% 지원
- ※항공료 지급원칙
 - 항공료는 재단이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집행하며 차액 발생시 본인 자부담
 - 대회 참가목적 외 개인목적으로 타지역 경유시 해당 항공비 본인 자부담

나. 숙박

- 숙박: 2인 1실(1인실 사용 시 차액 본인 부담)
- 식사: 1일 3식(대회기간에 한하며 개인사용 경비 제외)

다. 여행자 보험(행사 기간에 한함)

4. 문의처

- 가. 담당자: 차세대사업부 김정혜 차장
- 나. 연락처: 82-2-3415-0176, jheakim@okf.or.kr
- 다. 참고: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

● 코리아타운 사람들

임영상, 주동완(북코리아)



세계 속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공간적 연구를 해온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 교수의 신작으로, 코리아타운이 현지 사회, 문화와 어우러져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정리한 연구서이다. 해외 각 나라에서의 코리아타운뿐만 아니라, 한국 속의 코리아타운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가리봉동, 안산, 광주 고려인마을과 이곳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주동완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장, 장태한 UC리버사이드대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소장, 민병갑 미국 뉴욕 퀸스칼리지 재외한인연구소 소장, 아시모토 미유키 일본 릿쿄대학 겸임교수, 정정선 도쿄샘물학교 교장,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정희숙 중국조선민족사학회 부회장 등도 집필에 참여했다.

● 만약에 사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김정완(이담복스)



사우디의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다 보면 인간이 작지만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 에세이는 사우디에서 영국인 남자와 재혼하여 사는 한인 여성이 이색적인 중동문화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명예살인, 여성에 대한 속박 등 중동문화는 처음에 배타적으로 다가온 것들이 컸다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사막이 주는 신비한 환경 속에서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일상의 이야기보다 더 특별함을 담고 있다.

●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정상천(산지니)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무장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펜을 들고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독립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은 타지에서 글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서영해의 삶을 정리하였다. 저자는 직접 서영해가 프랑스 현지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정리, 번역하여 이 책에 실었다. 서영해가 직접 쓴 글들을 만나보면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임시정부 시기까지 그의 삶 속에 맞닿아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펜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서영해의 글들을 읽으며, 조국의 독립을 열망했던 그의 정신이 전해지길 바란다.

바른 말 고운 말

쌍심지를 켜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쌍심지를 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쌍심지'라는 말은 원래 하나의 등잔에 있는 두 개의 심지를 뜻하는 말로, '쌍심지를 켜다'란 말은 두 개의 심지를 모두 켜면 더 밝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쌍심지'라고 하면 원래의 뜻에서 더 나아가 몹시 화가 나서 두 눈에 핏발이 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쌍심지를 켜다'고 하면 몹시 화를 내어 눈에 열화를 띠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뜻을 혼동해서 잘못 알고 쓰는 표현 중에 '쌍수를 들다'와 '쌍지팡이를 잡고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쌍수'는 오른손과 왼손을 가리키는 말로 '쌍수를 들다'는 두 손을 들어 기꺼이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뜻으로, '너의 제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쌍지팡이'는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한 사람이 짚은 두 개의 지팡이를 가리키는 말로 '쌍지팡이를 잡고 나선다'는 말은 참견을 잘 하는 사람을 비꼰 때 쓰는 말로, '잘 나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갚음과 앙갚음

우리 속담에 '까마귀는 자라서 어미를 먹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까마귀도 자기 어미에게 효도하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까마귀만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새끼는 다 자란 뒤에, 거동할 수 없는 자기의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성을 가리켜서 '반포지효(反哺之孝)'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그냥 '반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인간 세상에서도 자식이 커서 저를 길러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봉양하는 효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효성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 '안갚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발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앙갚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남이 자기에게 해를 준 대로 자기도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안갚음'과 '앙갚음'은 정반대의 뜻을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사용해야겠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오른쪽 방향 열쇠

1. 대한민국의 국기
3.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
7.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9. 법률로 정해진 금지
11.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시골의 반대
13. 한글 자모 'ㄹ'의 이름
15. 액체가 기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옴, 또는 그렇게 함
16.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8.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경치를 이르는 말
20.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21. 영어의 문법
24.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나타내는 수치
27. 뜨겁게 달군 팬에 팬에 밀가루 반죽을 펴고 연한 쪽피를 나란히 얹어 지진 음식
29. 사물의 중심이 되는 요점
31. 인간의 체형에서 신장과 머리 길이의 비율이 8대 10이 되는 것, 미인의 표준이다
33. 선천하여 학습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과목이나 교과목
34.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함, 또는 그런 기술이나 솜씨

▶ 아래쪽 방향 열쇠

1.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스포츠,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
2. 한글 자모 'ㄱ'의 이름
4. 국가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
5. 산의 맨 꼭대기, 또는 사물의 진형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6. 한반도 토종 어류로 강제규 감독이 극본·감독을 맡은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8.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
10. 강원도 북부의 회양군·고성군·통천군·인제군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명산이다. 태백산맥에 달려 있다
12. 남편의 누이
14. 고구려의 장군으로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물리친 살수대첩 승리의 주역
17.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19. 손가락과 젓가락
20. 잎나무나 검불, 마른 나뭇가지 등을 모아 피우는 불
22.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상, 우주, 세계의 뜻으로 이르는 말
23.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하여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
25. 속도가 아주 빠른 배
26. 우리의 전통 음료, 꽃감을 달인 물에다 생강, 잣, 계피 등을 넣어 만든 것
28. 벗짚으로 삼아 만든 신
30. 살아 있는 나무, 목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32. 학생이 학교에 감

▶ 2019년 2월호 정답

분	장	사		비		파	장
위		식	이	요	법		거
기	수		지		대	자	리
	정	곡		경	험		경
보				준		공	주
편		송	능		연	모	
타	이	어	패			전	방
당			이	기	주	의	송
성	공	목			사	로	국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A Platform for Peace and Communication

2019. 5. 20 (월) - 5. 22 (수) 아라아트센터

5월 20일
10:00 - 12:30 **개회식**
14:00 - 17:00 **세션 1 - 이산과 삶**

5월 21일
10:00 - 13:00 **세션 2 - DMZ의 나라에서**
14:00 - 17:00 **세션 3 - 왜 쓰는가**

5월 22일
10:00 - 13:00 **세션 4 - 내가 만난 한국문학 한국문화**
14:00 - 17:00 **세션 5 - 소수자로 산다는 것**

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me/naforum.kr 로 확인해주세요.
NAVER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제4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히”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주최: 환경·비영리, 재래부흥, 자유 선택(어린이가 만들었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환경부문: 지구환경, 미세먼지, 환경보호 등

출품대상: 2018년 9월 29일 이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타 대회에 출품하지 않은 것으로 어린이가 만들었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경쟁부문: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작품(개인이나 팀당 1편의 작품만 제출)
비경쟁부문: 국내외 중·고 학생 및 초·중·고 교육가족, 학교 밖 청소년이 제작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경쟁 부문 출품과 관계 없이 출품 가능)
해외부문: 해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촬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환경부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제작한 작품

출품분야: 분량: 5분 내외(6분 이상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장르: 극영화 또는 비극영화(단, 광고, 뮤직비디오, UCC 유형의 콘텐츠를 출품할 경우 심사시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출품기간: 2019년 7월 26일(금)까지

제출요령: 영상(mp4, avi 파일 모두 제출)과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는 밴드(<https://band.us/band/71040232>) 또는 서울동담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dab.es.kr/index.do>)에서 다운

일시: 2019. 8. 29(목) 13:30~
시사회: 2019. 7. 26(금)~26(토) 18시 40분부터 18시 45분까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홈페이지, 채널선택

장소: 동대문구 체육관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 **일자** 2019. 5. 20(월) ~ 22(수)
- **장소** 아라아트센터 5F(중로구 견지동)
- **주최** 한국문학번역원
- **참가신청** 네이버 검색창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검색
(자세한 신청방법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 5.20(월)**
10:00 ~ 12:30 **개회식 및 기조강연** - 기조강연: **최원식** 인현대 명예교수
14:00 ~ 17:00 **세션 1 - 이산과 삶** / 사회: **정철훈**(한국, 소설가)
선선영(미국, 시인), 김혁(중국, 소설가), 박미하일(러시아, 소설가),
임철우(한국, 소설가), 조해진(한국, 소설가)
- 5.21(화)**
10:00 ~ 13:00 **세션 2 - DMZ의 나라에서** / 사회: **신수정**(한국, 평론가)
박분(독일, 극작가), 임마누엘 킴(미국, 평론가), 김연수(한국, 소설가),
허연(한국, 시인), 이창동(한국, 소설가)
14:00 ~ 17:00 **세션 3 - 왜 쓰는가** / 사회: **심보선**(한국, 시인)
미야 리 랑그바드(덴마크, 시인), 최실(일본, 소설가), 강영숙(한국, 소설가)
- 5.22(수)**
10:00 ~ 13:00 **세션 4 - 내가 만난 한국문학 · 한국문화** / 사회: **최동호**(한국, 시인)
석화(중국, 시인), 게리 박(미국, 소설가), 아스트리드 트로프스(스웨덴, 소설가),
전성태(한국, 소설가), 신용목(한국, 시인)
14:00 ~ 17:00 **세션 5 - 소수자로 산다는 것** / 사회: **정은귀**(한국, 평론가)
정의신(일본, 극작가), 진린순(중국, 소설가), 제인 정 트렌카(미국, 소설가),
닉 페어웰(브라질, 소설가), 김혜순(한국, 시인), 김민숙(한국, 소설가)
- **문의**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사무국 E-mail. pcfp_info@klti.or.kr

- **일시** 2019.8.29(목) 13:30~
- **장소** 동대문구 체육관
시사회: 2019.7.26.(금) ~ 8.23.(금) 네이버TV 통해 실시
(네이버로그인 후 네이버TV, 제4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검색, 채널선택)
상영회: 2019.8.26.(목) 10:30~ 동대문구문화회관 소극장
- **주제**
경쟁·비경쟁부문, 해외부문: 자유 선택(어린이가 만들었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환경부문: 지구환경, 미세먼지, 환경보호 등
- **출품 대상**
공통: 2018년 9월 29일 이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타 대회에 출품하지 않은 영화로 어린이가 만들었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경쟁부문: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작품(개인이나 팀당 1편의 작품만 제출)
비경쟁부문: 국내외 중·고 학생 및 초·중·고 교육가족, 학교 밖 청소년이 제작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경쟁 부문 출품과 관계없이 출품 가능)
해외부문: 해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촬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
환경부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제작한 작품
- **출품분야**
분량: 5분 내외(6분 이상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장르: 극영화 또는 비극영화(단, 광고, 뮤직비디오, UCC유형의 콘텐츠를 출품한 경우 심사시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출품기간** 2018년 7월 26일(금)까지
- **제출요령**
영상(mp4, avi 파일 모두 제출)과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는 밴드(<https://band.us/band/71040232>) 또는 서울동담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dab.es.kr/index.do>)에서 다운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2019. 4. 15(MON) ~ 6. 14(FRI)

한국시간 기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급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시인 윤동주가 “재외동포”로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재외동포의 장' 2019년 3월호 내 OKF 뉴스 (<http://webzine.korean.net/>)

※ 재외동포 시인·독립운동가 윤동주(尹東柱, 1917~1945) 소개
북간도 용정 출생. 20세에 조선으로 유학, 연희전문학교 졸업. 24세에 일본으로 가 유학 중 독립운동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27세에 서거했다. 건국훈장 독립장(1990).

응모자격

성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접수방법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 문의(이메일):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
culture@okf.or.kr

공모 부문·주제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부문)

· 시·단편소설: 자유주제

·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청소년(중·고등, 초등 글짓기 부문)

· 주제(예시)

- 3.1운동 정신과 나, 대한민국과 나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감상평

- 기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주제

시상내역

· 시상내역: 총 30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3530만원

성인(3개 부문) [시/단편소설/ 체험수기]

대상(3명) | 300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6명) | 200만원, 상패 (부문별 2인)

가작(9명) | 50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청소년(2개 부문) [중·고등/초등 글짓기]

최우수상(2명) | 100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4명) | 50만원, 상패 (부문별 2인)

장려상(6명) | 30만원, 상패 (부문별 3인)

한글학교

특별상(2개교) | 200만원, 상패